

영업용 차 보험료 19% ↑... 서민이 봉인가?

올해 상반기 영업용 차량 보험료가 최대 1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용 차량 대부분이 택시나 화물차, 버스 등 서민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5월 10일부터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19.1% 올렸다. 이어 LIG손해보험(14.9%), 삼성화재(14.5%), 한화손해보험(13.7%), 현대해상(11.3%) 등 순으로 상반기 보험료 인상을 마쳤다.

9개 손보사 영업용 차량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1.6%다. 동부화재(10.8%)와 메리츠화재(10.5%), 롯데손해보험(7.7%)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MG손보는 2.1%로 인상폭이 가장 낮았다.

영업용 차량은 대개 버스나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을 말한다. 이 때문에 영업용 차량 보험료 인상은 서민의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 보험료 인상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지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화물차나 택시 등은 사고가 잦고 최근에는 정비 요금도 급등해 수익 구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료까지 오른다면 업을 그만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상폭이 큰 중소 보험사를 중심으로 통계가

9개 손보사 평균 인상률 11.6% 달해

대부분 택시·화물차 등 서민경제 밀접

■ 상반기 영업용 차량 보험료 인상률

보험사	인상률(%)	시행시기
더케이손해보험	19.1	5월10일
LIG손해보험	14.9	4월7일
삼성화재	14.5	3월16일
한화손해보험	13.7	4월21일
현대해상	11.3	4월11일
동부화재	10.8	4월11일
메리츠화재	10.5	4월16일
롯데손해보험	7.7	5월16일
MG손해보험	2.1	5월1일

보여주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상 폭이 가장 높았던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판매 실적이 보통 한 달에 10대가 채 안 된다”며 “지난해 렌터카 업체를 단체로 받은 적이 있는데, 보험료가 워낙 저렴해 손해율이 150% 정도 나왔

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적 손해를 놓고 조정하다 보니 보험료 인상 폭이 컸던 것”이라며 “대형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 한 대당 보험료가 낮아 인상률을 적용해도 실제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걸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올랐다”며 “특히 자동차 운행 시간이 많은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나 버스는 대부분 공제조합을 통해 단체보험을 든다”며 “이번 인상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보업계에 선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7%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손보업계 평균 손해율은 84.7%를 찍었다. 적정 손해율과 1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생긴 것이다. 결국,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을 부추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하반기에 이번과 같이 큰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년에 처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사의 인상을 유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해들어 서민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보험료가 대폭 올라,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황에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어려운 증권약관 쉬운 말로 바뀐다

한자어는 우리말로, 전문용어 설명 추가

어려운 금융용어로 가득했던 증권사의 거래 계좌 약관이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뀌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어려운 금융용어와 한자어 등을 알기 쉽게 바꾼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 대상은 매매거래, 파생상품, 신용거래, 증권대차거래, 연금저축 계좌 설정 약관 등 모두 11종이다.

약관 개정 작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금융용어의 개선 작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때문에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고 불완전판매의 우려도 있다는 지적

에 따라 작업을 추진했다.

어려운 한자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고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

전문 용어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거나 대체 용어가 없을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약관 개정 작업을 했다.

협회와 증권사들은 바뀌어야 할 용어 55개를 추려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괄호를 이용한 설명을 추가했다.

‘가산’은 ‘더하다’로, ‘귀책사유’와 ‘기산일’은 각각 ‘책임 있는 사유’, ‘시작하는 날’로 바뀌었다.

대답하였거나(→대신 내어 주었거나), 상이한(→다른), 지득한(→알게 된), 일체의(→모든) 등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 약관에서 사라졌다.

증권사의 매매거래 계좌 설정 약관에서 ‘대용증권’ 옆에는 괄호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낼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양도 및 질권 설정 항목에는 ‘질권’을 설명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담보물을 사용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거래 약관에서는 예매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내게 하는 조치),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어받은 주식의 매도대금),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만큼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경기 활성화 ‘훈풍’ 기대... 2050포인트 넘는다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임 후 특단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취임 후 지난 18일에 열린 첫번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현정부 2기 경제팀은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 대응을 강조하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가계소득 정체와 비정규직문제,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따른 투자둔화, 자금흐름 경색 등 크게 3가지를 들었다.

특히 내수부진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수수지 과다흑자라는 축소균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새경제팀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며 새경제팀의 과감한 정책대응의지를 보였다. 내수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시장활성화 방안과 함께 증권시장에서도 기업배당 확대, 세제개혁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활성화, 증시투자 확대방안 등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예상되며 시장의 기대는 매우 큰 상황이다.

7월 통틀어 거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기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를 낮추는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며 반등을 보이고 있다.

대외변수도 개선되고 있다. 열린 의장의 고평가 경고에도 미국 증시의 사상최고치 경신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도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의

미니부양책 발표에 이는 경제지표의 개선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번 주는 삼성엔지니어링, POSCO,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핵심기업들의 2분기 실적발표가 집중되어 있다. 그 동안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우리증시의 글로벌증시대비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핵심적인 요인중 하나인 부진한 실적이었다.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적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 최대로 부각된다는 점은 지수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도 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증시의 훈풍 속에서 국내기업의 실적불안감이 상존하며 코스피지수는 2050포인트 고점 돌파시도가 다시 나타날것으로 예상된다. 업종으로는 환율반등에 따라 투자심리 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IT와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업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증권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여성 노후연금 남성의 41% 불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

월 男 36만원, 女 15만원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의 노후연금이 남성의 41%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국민연금 연구원의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연금소득은 월평균 36만4천원인데 비해 여성은 월평균 15만원으로, 남성의 연금소득 대비 41.3%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만 보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60만3천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대비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천원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비율은 75.6%였으나, 65세 이상 인구 중 57.3%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연금액이 작아진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65세 이상 남성의 34.9%, 여성의 53.5%는 다른 공적·사적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이 남성 199만원, 여성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액도 한국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은 수준이다. 또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연합뉴스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 2003년식, 30평, 3층, 방3, 화장
- 정남향, 전체 울수리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 - 9000만원(조정 가)

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전체 울수리
- 양동~하천 방향,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1억 5500만원(일시불 조정 가)

투자 가치 좋습니다
H. 010 - 3605 - 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합니다